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89 1983년 3월 2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March 24, 1983

MAR 2 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버팔로이민국 밀려오는 밀입국자로 골치

토론토 미밀입국 온상

1인당 알선수수료 $1,500~3,000

메트로·토론토가 미국 밀입국 알선의 집결지로 부상하고 있어 미당국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있다.

뉴욕주 버팔로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이민 당국자는 캐나다로 부터 밀려들어오는 밀입국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특히 대형트럭에 숨어들어 오는 밀입국자 색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민사무소 부책임자인 윌리암·트루스데일씨는, 대다수의 밀입국자들이 토론토를 거쳐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덮개가 씌여있는 트럭뒤에 숨어 밀입국하려던 6명의 중남미인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토론토에 근거를 두고 있는 2명의 밀입국알선업자들에게 인도되었던 이들은, 현재 미이민당국에 의해 실형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이들을 인도하면 두사람도 역시 버팔로형무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트루스데일씨는 많은 캐리비안(Caribbian) 사람들이 토론토와 연관되어 밀입국알선을 받고 있으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사람들도 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토론토에는 미국에 불법입국 희망자에게 일인당 $1,500내지 $3,00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밀입국자의 범람은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가능하면 그전에 입국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캐나다이민국과 연방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 미 이민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현재 밀입국죄로 판명되면 5년징역이나 1인 알선당 $5,000씩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경기호전 기미"

캐나다통계국 발표

(오타와)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nda)은 21일 인플레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경제가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계국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복합주요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연3개월 증가했으며 12월의 상승폭은 기록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볼때 주기적 반전(Cyclical upturn)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통계국이 작성하는 복합주요경제지수는 경제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종합지수이다.

또한 통계국이 발표한 지난달의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1월중 내림세를 보인 물가는 2월중 약간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인플레는 8개월째 계속 하락, 지난해 여름 중순이래 약5%의 수준에 머물었다.

또한 2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1981=100)로 1월보다 0.4%상승했으나 인플레가 계속 둔화함으로써 2월중 지수는 1년전에 비해 겨우 7.4%가 높았다. 그러나 이 숫자는 1월의 지수가 1년전에 비해 8.3%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숫자이다.

82년도의 소비자물가 인플레율은 10.8%였으며 그 전해인 81년도는 12.5%였다.

— 미스·코리아후보 제2호 —

"사랑스런 아내 되고파"

신의상사근무 최경선양

캐나다미스코리아후보 제2호가 등록됐다.

경기도 인천시 출생인 최경선양은 61년생으로 21살, 163Cm의 큰키에 52Kg의 몸매로 서울 강남구의 은광여고 출신이다.

부모는 8년전 이민했고, 최양은 여고졸업과 동시에 4년전 토론토로 이민와서 부모와 합류했다.

가족은 직장에 다니는 부친 최종훈씨(48)와 모친, 남동생 앤디(3세)까지 4가족의 장녀인 최양은 현재 조지·브라운칼리지 어카운팅과 2년 재학중. 알바이트로 교포도매상 신의상사에서 일하며, 근무처인 신의상사 추천으로 미스코리아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장래희망으로 "한 사람의 사랑스런 아내"가 되고 싶은 최양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존경해야할 분은 많으나 그중에서도 고종욱 신부를 존경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프랑스와 일본에 가보고 싶으며,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가장 갖고 싶은 것은 예쁜 강아지"라고 생글 웃을때는 풍이 아직도 소녀티가 가시지 않았다.

◆22일 미인후보 제2호로 등록한 최경선(21)양

미국밀입국 루트가 바뀌었다

단속심한 남부대신 허술한 북동부로

(LA지사발)

미남부국경에 대한 밀입국경계가 한층 강화되자 불법입국자들의 밀입국통로가 뉴햄프셔, 버몬트, 뉴욕등 단속이 허술한 뉴잉글랜드쪽 북동부 국경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경순찰대는 지난2월 남부국경을 이용,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다 체포된 불법입국자는 8만3백10명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같은 기간의 6만4천8백63명보다 훨씬 증가된 숫자다.

이에비해 최근들어 뉴잉글랜드지방에서는 외국인들을 불법입국시키는 밀입국알선업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으며 지난 2월 이곳에서 체포된 폴랜드, 아이티등의 밀입국자들은 1백72명으로 82년 2월의 1백3명보다 무려 70%가 늘어나 남부국경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대해 국경순찰대 태티·테버보우국장은 뉴잉글랜드지방의 한정된 국경수비가 밀입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경제가 계속 악화되자 알선업자들에 밀입국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알선업자들은 밀입국비용으로 1인당 2백50달러부터 3천달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버보우국장은 밀입국알선업자들의 정확한 수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들은 미국내 대도시근방에서 활동하면서 캐나다와 다른국가의 밀입국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알선업자들은 조직망을 갖고 완전히 상업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밀입국자들은 알선업자들에 의해 미국경근방까지 올라온후 국경을 넘으면 다시 미국내에 있던 알선업자들에 넘겨지는 방식으로 미국에 불법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밀입국자들이 겨울에 북동부의 국경을 넘은후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남쪽국경을 이용한 밀입국자들이 무더위로 사망한 경우는 여러차례 보도된바 있다.

한편 일단 미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은 대부분이 보스턴이나 뉴욕등 지역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내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같은나라 이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테버보우국장은 덧붙였다.

이철수씨 보석허가

석방길 열려… 보석금 25만불

〈스탁턴-상항지사〉 이철수제2사건을 관장하고있는 샌호킨카운티 수피리얼코트는 21일 이철수씨(30)에게 25만달러의 보석금을 결정, 석방의 길을 터놓았다.

재판장 K·피터·세이어스 판사(Judge·K·Peter Saires)는 스튜어트·헨론변호인의 보석신청에 대하여 즉석에서 이를 받아들여 25만달러로 책정했다.

스튜어트·헨론변호인은 다시 이철수씨의 특별한 환경을 설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보석금의 인하를 요청하자 세이어스판사는 오는28일 보석금인하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정의 보석금책정으로 이철수씨는 보석금만 법원에 납부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이철수씨는 1973년 6월7일 제1사건(차이나타운갱살인사건-1982년 9월3일완전무죄)으로 체포된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받게됐다.

이날 상오9시38분 이철수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2명의 법정정리의 호송을 받아 샌호킨카운티 제3호법정에 출정해 미리 대기한 스튜어트·헨론변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결수복장의 이씨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있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측에서 테리·베노스 샌호킨카운티검찰검사가 입회했으며 관선변호인 앤토니·J·새전과 원심재판당시 이씨변호인 타우만변호사도 참석했다.

또한 방청인으로 이철수어머니 이미례여사, 유재건후원회장, 랄프·야마다변호사, 여래사주지 이설조스님, 북가주상조회 파일성회장, 도리스·파씨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약6분간의 이씨보석금결정과 청문회일자를 정한 예심을 끝내고 이씨어머니 이미례여사와 유재건후원회장은 재판부의 특별허가로 샌호킨카운티구치소에서 30분간 이철수씨와 면회했다.

이자리에서 이씨는 『건강은 아주 좋으며 모든일 잘 되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보석금책정으로 이씨는 25만달러의 10%인 2만5천달러본드나 보석금전액현찰 또는 보석금액에 상당한 재산담보가치를 보증한다면(재산가치는 보통 보석금의 2배정도) 즉시 자유의 몸이 될수있다.

인구의 2/3가 종교인

불교, 기독교, 유교순…문공부 발표

(서울=연합) 문화공보부는 23일 한국인 종교실태를 발표, 작년1월기준 한국인의 77.7%(총2,900만명)가 각종 종교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1,110만명(37.4%)이며, 다음이 기독교인으로 900만명(30.4%)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개신교는 25.6%, 카톨릭 4.8%.

이외에 유교 520만명(17.5%), 천도교 110만명(3.6%), 원불교 94만명(3.2%), 대종교 31만명(1.1%) 등이며 그외 약220만명은 군소종교에 속하고 있다.

한편 각종교의 종파의 경우 불교가 18종파, 개신교 69파, 카톨릭 14파인것으로 나타났고 유교,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등은 갈리지 않은채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배장소의 경우는 개신교가 23,346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불교(7,253개소), 카톨릭(2,353개소), 원불교(333개소), 천도교(249개소), 유교(232개소), 대종교(88개소)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지도자의 수를 보면 역시 개신교가 33,8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불교(20,755명), 유교(11,950), 카톨릭(4,797명)등의 순이며, 기타 10,352명이 군소 종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모기지이자 내림세

1년형 11.25%까지

캐나다 퍼머넌트 모기지공사(Canada Permanent Mortgage Corp.)와 로얄·트러스트(Royal Trustco)는 22일 1년만기 모기지 이자율을 11.25%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시중금융기관으로는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내릴것으로 보고 있다.

은하 보석
한국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1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83년도
신세계
구라파 단체관광

IATA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여행을 즐기십시요.

	A일정	B일정
출 발	1983년 7월23일(토) ※동시출발	
귀 환	1983년8월8일(월)	1983년 8월11일(목)
기 간	17일간	20일간
요 금	$1,850(2인1실)	$1,625(2인1 실)
방문지	9개국 : 영국·벨기에·화란·서독·오지리 이태리·모나코·스위스·불란서	
요금에포함된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지상및해상교통비 ●세금및봉사료 ●관광지입장료 ●식사(3개도시 제외하고 아침및 저녁식사 제공)	
신 청	등록 : 1983년 5월31일 계약금$300불입 마감 : 1983년6월25일 잔액지불(30명 선착순)	
기 타	1. 영국행 항공요금의 인하로 관광요금을 재조정하였음. 2. 한국인 안내자 동반 3. 동일한 관광일정이지만 호텔·식사및 관광내용의 질에 요금차이 발생. 4. 4년째실시하는 경험을 토대로 가장 추억에 남을만한 일정만을 선택함. 5. 캐나다일시방문자의 참가를 환영(비자및 재입국관계협조)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금년여름 학생구직난 심화

—각대학 학생과담당자 예상—

금년 여름은 직장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학생과 담당자들은 금년 여름 학생들을 위한 직장수는 작년의 절반을 겨우 넘어선 수준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퀸즈 유니버시티 학생지도 및 취업알선 담당자 마가렛·바버씨는 "작년도 힘든 해였지만 올해는 더욱 힘든 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금년도에는 엔지니어 계통의 직장수가 작년의 55%이하이며, 컴퓨터계통은 35%, 상과계통은 20%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경영학과(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소유자들에도 취직문이 그다지 넓진 않을 것 같다고 이관계자는 말했다.

전국 대학 직업안내협회는 21일 동협회가 접촉한 3천여개 회사가 금년에 받아들일 신입사원의 수는 4월초나 되어야 밝혀질 것이나 회사들은 대부분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해고시킨 사원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5만 유니버시티 및 칼리지 학생들의 연합체인 캐나다 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은 로이드·액쉬디 연방 고용장관에게 앞으로 직장창출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학생들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방 고용성은 앞서 금년여름 캐나다 군입대자들을 포함, 약 7만개의 학생여름직장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었다. 학생연맹은 만약 학생들과 협의했었다면 똑같은 예산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도 위반

헌법상의 영·불어 공용규정

(오타와) 일부 연방정부기관은 헌법에 보장된 영·불어 동등사용원칙을 거의 늘 위반하고 있다고 맥스웰·얄멘 공용어코미셔너가 22일 의회에서 지적했다.

얄멘씨는 이날 연례보고를 통해 헌법을 위반하는 이들 정부기관을 법정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국민들이 그 기관에다 직접 항의하는 것이 신속하고 경비도 덜 들 것이라고 말했다.

얄멘씨는 또한 퀘벡주의 영어인구와 그밖의 주의 불어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 비추어 모든 정부기관이 반드시 영·불어를 병용한다는 것은 이미 "시들은 의욕에 피상적인 위안감만 제공하는 꼴이 되지않을까 염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18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얄멘씨가 지적한 정부기관은 각 대학들을 비롯,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캐나다(Petro Canada), 에어·캐나다(Air Canada)등이다.

페트로·캐나다는 예를 들어 퀘벡주의 주유소에 영어간판을 달지않고 있으며 에어·캐나다는 37%가 불어인구인 온타리오주 티민스의 동회사 사무실에 불어사용직원을 1명도 두지않았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활절『계란찾기게임』

어린이위해… 블랙·크릭·빌리지

블랙·크릭·파이어니어·빌리지(Black Creek Pioneer Village)에서는 2일 부활절(4월3일)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스터·에그(계란)찾기"를 실시한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 부활절풍속은 어린아이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돋우어 주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직원들이 손수 색칠을 하고 요소요소에 숨겨논 약2,000개의 계란을 부모와 함께 찾게 된다.

온타리오양계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의 "에그·헌트는, 일반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찾은 계란은 쵸코렛, 캔디와 교환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메이플시럽의 시범과 시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작년도의 경우 에그·헌팅에는 약6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 직원이 밝혔다.

블랙·크릭의 위치는 제인스트릿과 스틸에비뉴(Jane St×Steeles Ave)이며, 개장시간은 평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5시이며, 주말엔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이다.

입장료는 성인이 $4, 학생 $1.75, 노인 $2, 가족 $8이며, 버스는 #35B Jane St경유와 #60 Steeles, W.경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661-6600이로 가능하다.

8월초 정식취항

정보구역통과 항로

〈서울본사전화〉동경과 북경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의 우리나라 통행정보구역(FIR)통과실험비행이 빠르면 3월중에 실시되어 8월초부터 일본항공(JAL)과 중공항공(CAAC)소속비행기들이 이항로를 정식취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로는 동경과 상해를 직선으로 연결, 우리나라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실협 10주년에 부치는글

박희민박사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본사 논설위원)

◆박희민목사

한인 실업인협회는 오는 3월26일 하버캣슬 힐튼호텔에서 한인사회사상 실내 디너파티로서는 최대의 규모인 맘모스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초청귀빈으로서는 프랭크 드레아 장관과 이글톤시장을 위시하여 많은 내빈들이 초대되고 200여 상품제조업자와 공급업자들도 대거 참석하게 되며 총동원인원은 2,000여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의 의의와 목적은 첫째로, 실협의 창립 10년을 자축하고,

둘째로, 협회의 회원 및 사업을 소개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세째는, 거래하는 회사들의 상품(production)을 직접 현장에서 전시(display)하여 싼값으로 주문(order)을 받게 하므로 실제적인 사업의 이익을 도우며,

네째는, 거래하는 회사들이나 캐나다사회에 우리 한인교포사회와 실협의 실력과 단결력을 과시해 보려는등 다각적 목적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번 행사는 7주년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외국인 공급자들의 반응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교포사회의 반응도 대단히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디너 비용은 6만불이 넘으며 상품값만도 7만불이상이 되고 있다. 그중에는 포니자동차 1대와 세계일주여행권이 많은 사람들의 행운의 꿈을 자극시키고 있다.

이런 큰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실협과 관계자들에게 그 수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다음 몇가지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공중질서와 에티켓의 문제이다. 많은 한인교포 행사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은 우리 교포들에게 아직도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쉬운 것을 본다. 예를 들어 시간을 엄수하는 일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나 좌석정돈에 있어서 좀더 질서 정연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한 사회와 콤뮤니티의 공중질서나 도덕은 그 사회인의 양식과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와 교포들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피차 유의하며 동방예의지국인으로서 양식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로, 너무 겉치레만하는 Show up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로 끝난다면 무엇인가 너무 아쉬운 점이 있을것만 같다. 좀더 실속있는 행사로 연결되고 교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날의 수입중 얼마를 한인사회를 위해 쓰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을때 마음흐뭇한 바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실협은 앞으로 교민사회와 캐나다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면 한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흑인들이 'Korean Go Home'이란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한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에서 돈을 벌어들였으면 또한 그 사회를 위해 되돌려줄 줄(return) 아는 기여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세째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실협은 한인실업인들의 사업운영과 관리를 분석평가하고 모방이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개발과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급해주기 위해 Seminar나 교육프로그램등, 실업인들의 계속교육과 기술습득에도 어떤 계획이 앞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과다경쟁이나 계획성이 없고 시장조사 같은것도 전혀 없이 그저 〈한바탕 해보자는 식〉의 사업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발전시켜 가며 이 사회에 도전하고 파고들려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뒤따라야 할줄로 안다.

끝으로 협회는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상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건전한 상도덕과 윤리정립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리며 어떤 점에서는 과다출혈을 피하거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같이 사는 법〉을 익혀가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실협이 노력해온 줄로 알지만 이기회에 다시 한번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한다.

金聖鍾작

<197>

어머니와 아들 ④

"죽은 네 아버지는 중국인이었어"

그는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올때마다 듣는 똑같은 말을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네 동생은 네 아빠를 닮았지. 그런데 너는 나를 닮았어. 네 동생은 아빠를 닮아 아주 욕심이 많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서 너하고 항상 싸움질이었지. 싸움이 나면 결국 지는 건 네쪽이었지. 생각나니?』

『네, 생각납니다.』

그는 그런 기억이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너는 동생처럼 욕심이 별로 없고 언제나 동생한테 져주곤했지. 너는 나를 너무 닮았어. 너무 순한게 탈이야. 사람은 너무 순하면 탈이야. 화낼때 가서는 화도 내고 욕심부릴때 가서는 욕심도 부리고 해야해. 넌 너무 순하니까 지금까지 장가도 못가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요모양 요꼴이지 안 그러냐?』

『네,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방이 꺼지는 것 같은 한숨이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순했기 때문이야. 내가 좀더 사납게 굴었으면 네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을거야. 그랬더라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고…』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나 하십시다.』

『난 절대 네 아버지를 잊을수가 없어. 네 아버지는 중국인이었어.』

『네, 알고있읍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었다. 그가 철이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난 혼자서 너희들 둘을 기를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나쁜줄 알면서 너를 고아원에 맡긴거야. 나중에 그 고아원에 찾아갔더니 너는 이미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뒤였어. 나는 그 집을 아르켜달라고 애걸했지만 고아원에서는 모른다고 잡아뗐어. 나는거의 제 정신이 아니었지. 넌 이 에미를 많이 욕했겠지.』

노파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십시오. 다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네가 죽은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커서 나를 찾아오다니…피는속일수가 없나봐.』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가 어머니를 찾아낸 것은 약 1년전이었다. 그러니까 햇수로 쳐서 35년만에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그런데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않았어. 그동안 고생이 심했을텐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뭘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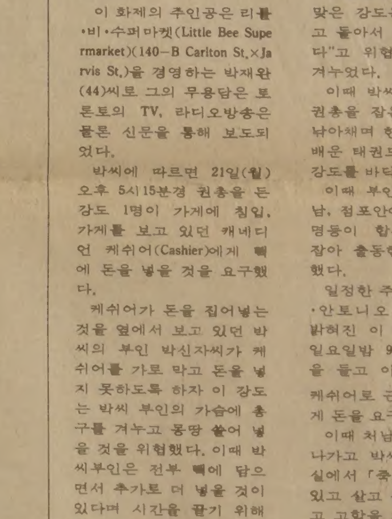
『아니야. 그래도난 듣고 싶다. 어떻게지냈는지 이야기해주렴.』

그는 한참동안 말없이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얼굴을 쳐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살았지요.』

『집도 없이 말이냐?』

『네, 일정한 집도 없었지요.』



朴 男 그림

권총강도잡은 교민일가족

토론토방송·신문등 크게 보도

한 용감한 교포가 자신의 수퍼마켓에 침입한 권총강도를 태권도 실력으로 사로 잡아 경찰에 인계 토론토 교민사회는 물론 캐네디안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리틀·비·수퍼마켓(Little Bee Supermarket)(140-B Carlton St.×Jarvis St.)을 경영하는 박재완(44)씨로 그의 무용담은 토론토의 TV, 라디오방송은 물론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박씨에 따르면 21일(월) 오후 5시15분경 권총을 든 강도 1명이 가게에 침입, 가게를 보고 있던 캐네디언 케쉬어(Cashier)에게 백에 돈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케쉬어가 돈을 집어넣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박씨의 부인 박신자씨가 케쉬어를 가로 막고 돈을 넣지 못하도록 하자 이 강도는 박씨 부인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몽땅 쓸어 넣을 것을 위협했다. 이때 박씨부인은 전부 백에 담으면서 추가로 더 넣을 것이 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찾는척했다.

이때 상점 2층 사무실에 있던 박씨는 상점에 강도가 들었음을 알고 경찰에 긴급전화를 걸고 가게로 내려와 그때까지 계속 부인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강도에게 콜라병으로 뒷통수를 내려쳤다.

엉겁결에 뒷통수를 얻어맞은 강도는 쓰러지지 않고 돌아서 박씨에게 "쏘겠다"고 위협하며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때 박씨는 순간적으로 권총을 잡은 범인의 손을 낚아채며 한국에서 학교때 배운 태권도 실력을 발휘, 강도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때 부인, 8세된 딸, 처남, 점포안에 있던 손님 2명등이 합세하여 범인을 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일정한 주소가 없는 루크·안토니오·차푸(22)으로 밝혀진 이 범인은 전날인 일요일밤 9:55분경에도 칼을 들고 이 가게에 침입, 케쉬어로 근무하던 처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때 처남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박씨가 윗층 사무실에서 「죽고 싶으면 거기 있고 살고 싶으면 나가라」고 고함을 치자 도망쳐 버렸다는것.

이 범인은 메트로경찰에 의해 강도·총기사용·위협무기소지등 3가지 죄목으로 입건되었다.

67년 이민온 박씨는 이 그로서리·스토어를 2년전에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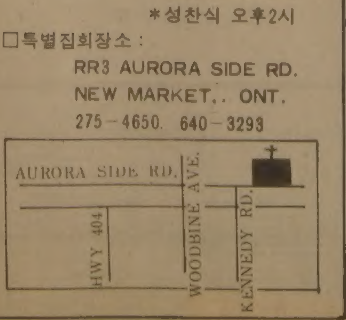
◆권총강도를 코카콜라병으로 내려친뒤 태권도 실력으로 눕힌 리틀·비·수퍼마켓의 주인 박재완씨와 부인및 6살난 딸. 박씨와 그 가족의 무용담은 토론토·선지등 신문과 TV등을 통해 크게 보도됐다.(사진은 23일자 선지에서)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 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5:8)

유월절대성회

□주최: 성 령 교 회
□목사: 김관선
□일시: 1983년 3월
25일(금) 오후7시
26일(토) 새벽6시, 오후7시
27일(일) 새벽6시
*성찬식 오후2시
□특별집회장소:
RR3 AURORA SIDE RD.
NEW MARKET,. ONT.
275-4650. 640-3293



1983년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바탕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유한한 존재의 인간의 삶을 원죄 이전의 영원한 존재로 환원하였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킨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부활의 개선가인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릅시다.

□시일: 1983년 4월3일(주일) 새벽6시
□장소: 서니부룩팍 축구장(작년도와 같은 장소)

주최: 토론토 지역 한인 교역자회
주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술면허 취득했읍니다.

오 믈 백 반	$2.95
칼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물 만 두	$2.95
곰 탕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 만 두 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내고향통닭집
☎537-0432
658½ BLOOR ST. W

양로원건립운동에 부쳐

도 움

진 수 현(캘가리 거주)

도움이라는 말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며, 순수한 마음에서 피차에 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발로라 믿는다. 그러므로 도움을 주고 받았을때 기쁜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이나, 어떤 때 피차에 깊이가 없이 주고 받아 씁쓰름한 후회를 남기는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

최근 지상을 통해 한인양로원건립을 위해 한인회와 다른 두 교회에서 주선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어떤 뜻이 있든 돕는다는 선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양로원만이 바람직하며, 누가 설립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지나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겠지만 어떤 이권문제가 있어 서로 주장한다할지라도 이 사업은 한인모두가 의무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야 하는 공동의 큰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협력이 결여된 양로원은 장래 인정이 메마른 삭막한 곳이 될 것 또한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사무적인 일로서만 처리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시작 다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영원히 한인 모두의 시선에서 멀어져가지 않도록 하는 2차적인 사업까지도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알며, 누가 이 일을 해낼수 있을까, 서로가 양보하며 적극 협조하는 미덕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안다.

누구나 지상을 통해 알겠지만, 토론토에 여러 단체와 44개의 교회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힘이 모여져 더욱 크며,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을수 있다.

누가 설립자가 되든 이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또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적격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한발 물러서야 할줄로 안다.

예를들어, 한 교회나 단체가 한 주를 담당하여 정성들여 만든 음식이라도 준비, 방문 위로 할 수 있을 때, 진정 삭막한 양로병원으로 버려두지는 않을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11개월에 한번, 어림잡아 1년에 한번 커다란 교회나 단체의 행사로도 가능할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내가 할 수 없게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나로 인해서 이 영원하며 거대한 힘들이 협력을 꺼려 기피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한다며 당연히 나는 한발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의로 시작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기대에 벗어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멋모르고 이땅에 발을 들여놓고, 초조와 불안속에서 나 이외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말 많은 사회라는 핑계로 주위와 타협하지 않으며 여기에 와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포심과 위축감도 사라지며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다음은 나와 나의 자녀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안다.

이러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며, 참여되어질 때 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경로사상을 가르키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내가 젊다고 늙지 않는 것은 아니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자식들로부터 나를 버려두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것이다.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를 위해서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장래 우리의 후손들은 이곳 캐나다의 관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나자신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을 의식하려 하지 않으며, 어떤 방종을 정당한 행위로 알게 되는 것이다.

구호만 외치는 어떤 것들 이전에 나와 나의 이웃이, 그리고 단체가 의무감을 갖고 이런 선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때 나의 후손들에게 좋은 선례를 물려주게 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영원한 한인사회의 단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위대한 사업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서로가 협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며, 절호의 좋은 기회를 망쳐 놓지 말기를 바란다.

독자 페이지

독자투고를 환영합니다.

투고희망자는 다음 사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고자의 성함·주소·전화번호 명기.

(2)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쓰실 것.

(3)개인의 명예나 사업을 근거없이 훼손하는 내용은 사절함.

(4)게재여부및 가필정정등 편집권은 본사에 있음.

(5)일단 접수된 원고는 본사보관이 원칙임.

— 편집부 —

한국의 유모어

정 옥 경(토론토 거주)

지겹던 추위도 풀리고, 아지랑이 이는 봄철 어느날, 용두골샌님이 격조하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사돈집 나들이를 갔다.

담뱃대 하나 들고 몇십리를 걸어서 사돈집에 당도하니 오랜만에 만난 사돈이 반겨맞아 씨암탉을 잡는다, 술을 걸은다해서 권커니 잘커니 밤이 깊도록 담소를 나누다가 자리에 들었다.

한잠을 자다가 사돈영감 모처럼 파식, 파음을 한 탓에 배가 아파 잠이 깨었다. 뒤가 급해 칙간(변소)에 가려는데 다리는 휘청, 의식은 몽롱, 밖은 칠흑이라, 칙간에서 돌아올 때 방을 옳게 찾아와야할 터인데 무엇을 대중할꼬 했더니 마침 마루밑에 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뒤를 보고 난 사돈영감 "옳거니 개 있는 마루위가 바로 사랑방이렸다"하고 들어가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하룻길을 걸어온데다가 술도 과하고해서 무의식중에 끙 끙 앓는 소리를 하며 곤히 잔다.

한데 뉘 알았으리, 사돈영감이 칙간에 갈때에는 사랑방 마루밑에 있던 개가 칙간에서 나올때는 안방 마루밑에 와 있었던 것을.

사돈마님이 잠결에 앓는 소리를 듣고, 마침 며느리의 해산이 임박했던지라, 옆에 자는 며느리로 알고 허리춤을 더듬어 내려보니 손에 몽둥!

"아이고 애들아! 애기났다! 어서 불켜라!"

주간女性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겨울과 복스바겐

이 원 용(프린스·죠지,B.C.)

캐나다에 이민와서 처음으로 타본 승용차가 형님의 검은 색 복스바겐(VOLKSWAGEN)이었다.

초청해주신 형님이 거주하는 P시의 공항에 내린 후 모두 6개나 되는 가방을 들고 주차장에 나와보니 조그마한 맹꽁이차라, 순간 짐은 어디다 싣고 양쪽집 10사람이 어떻게 앉아가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보니 짐은 차 지붕 위에 올려 단단한 끈으로 묶은 다음, 남자애들은 뒷좌석 너머 공간에 앉게 하고 형수님과 아내 그리고 큰 조카딸이 뒷좌석에 앉고 두집의 나이어린 공주들은 각각 엄마들의 무릎에 앉을 수 있는게 아닌가?

차가 출발하자 소음이 다른 차에 비해 요란했다. 비행기와 같은 공냉식 엔진 때문이라는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복스바겐(VOLKSWAGEN)의 조그마한 몸뚱이에 비해 적재능력이 크다는데 큰 인상을 받았다.

그 후 불편없이 타고 다니다가 겨울 어느날 하루 아침에는 단단한 노끈이 백미러와 액셀레이터·페달에 묶인채 늘어져있어 처음 보는 일이라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공병장교로 십여년 복무하면서 각종차량을 타보았고, 개솔린이 부족하면 연료탱크에 물을 넣어 가까운 거리를 달리는 비상방법, 뒷타이어를 떼고 벨트를 감아 시동하는 방법을 목격한 적이 있지만 운전석 아래 노끈이 매여있는 모습은 처음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곧 밝혀졌다. 달린지 얼마 안되어 정거하기 위해 페달을 밟은 후 밟은 페달이 원위치로 돌아오지않자 노끈을 당겨 속도를 줄이는것을 보고, 엔진이 차뒷부분에 달려있는 관계로 페달과 엔진사이의 연결라인이 보통차보다 길고 워밍·업 전에는 동결되는 단점을 이 차가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 두번째로는 베이지색 복스바겐을 흑색과 바꿔 타고 다녔지만 히팅장치가 안되어 먼 길을 드라이브하려면 담요로 무릎을 감싸고 다녀야해 불편을 겪었는데, 세번째로는 히팅장치가 된 빨간색 72년형 복스바겐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첫 마이카였다.

엔진이 공냉식이므로 부동액이나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 편하긴 했지만, 그 대신 히터가 개솔린을 쓰게 되어있어 겨울에는 더 개솔린값이 나가는것 같았다. 히터가 달려있어 먼저있던 두 차보다 겨울에 덜 고생을 했으나, 히팅을 최고로 올려도 아주 추운 날에는 앞, 옆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부득이 창을 열고 운전해야하는 불편, 몹시 추울 때에는 제법 달린 후 정거를 해도 계속 빠른 공회전을 유지해야하는 문제, 더운 사막에서는 물없이도 요긴하게 사용되겠지만 북쪽의 지방에서는 맥못추는 차임을 뒤늦게 깨달아 용단을 내려 토리노와 미련없이 트레이드해 버렸다.

요사이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가끔 하이웨이를 달리는 복스바겐을 목격하게 되면 그차 운전자의 고충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충분한 이해가 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캐나다에 와서 처음 3년간 맹꽁이차만 몰고 다닌 덕분이다.

▼ 나도 배우고 싶은데 — 19개월된 엘리자·클라크손양이 친척아줌마가 운영하는 발레학교에 놀러와 발레를 배우는 학생들에 호기심이 난듯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있다. 불행히(?) 클라크손양은 너무 어리기때문에 발레를 배울려면 몇년은 기다려야 한다는것. 〈렌싱, 미시간-UPI〉

한국노래

김 지 열 (미국 —오하이오주)

우리 아이가 피규어·스케이팅을 하는데 한국음악중 적당한 것이 필요하여 우리에게는 없지만 빌려올 기회가 생겼다.

한국어린이들의 합창곡, 독창곡, 고전무용등 대여섯개를 빌려와 하루는 큰 맘먹고 우리아이들에게 한국노래를 소개해 줄 좋은 기회가 되리라 싶어 레코드에 넣어 크게 틀어 놓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토끼, 토끼 산토끼", "고마우신 선생님", "아리랑"등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노래했던 것 들이다.

소풍을 갈 때 버스안에서, 혹은 손에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신나게 소리높여 불렀던 어렸을때의 흥겨웠던 노래들이며, 운동장에서 고무줄을 뛰어 넘으며 즐겼던 노래들이고, 합창을 할 때에 잘 못 뛰어나와 선생님한테 눈총받았던 추억의 노래들이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즐겨하는 나자신을 발견하고 말았다.

"Do you like it?"

아이들에게 묻는 나의 말에 "O-Kay"하며 대답하는 딸들의 느린 반응이 어째 시원치 않다.

"Don't you like it?"

다시 되묻는 나의 물음에 딸들이 대답한다.

"Yes, I like it"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의 표정은 조금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다.

엄마가 너무나도 즐기고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어정쩡한 표정을 짓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다.

"Grease", "Sound of music", "Physical"등 경쾌하고 율동적이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노래, 어른들이 성숙하게 멋지게 부르는 노래에 익숙해져 있고, 매혹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조용하고 느리고, 극히 감정적인 곡조의 한국 동요들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어찌 울려줄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의미도 모르니 말이다.

그들에겐 다만 엄마가 즐기고 있는 노래로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언제인가부터 나도 미국가요속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였다는 것이다.

애들이 레코드를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며 뛰고 흥겨워할 때 나도 함께 맞추어 노래하며 아이들과 함께 흥을 돋으며 즐기게 되는 것이다.

한국 유행가를 옛날에도 그렇게도 신나게 들었고, 구수하고 구성지게 들었고, 근사하게 들었었는데, 이제는 왜그런지 한없이 느린것 같으며, 속이 터질것 같아 들으면서도 목을 느려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은 어쩔수 없다.

미국 10년생활에 나도 달라졌나 보다.

뜻도 알수 없는 한국 어린이노래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좋아하기를 바라는 엄마가 우습지!

"Mommy, did you play the other side?"

"Why?"

"I want to know,"

"Why?"

"Because I just want to know."

짓궂게 되물으며 나는 가만히 웃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는 어린 딸 아이의 손에는 「Donny and Marie」의 노래판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월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맹진사댁 경사』

정 대 화(토론토교포 · 대화개발대표)

고 오영진선생의 창작극 「맹진사댁 경사」를 지금은 없어진 서울 명동네거리 국립극장에서 극단 「실험극단」의 공연을 본지가 1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Bloor거리에 연극을 공연하겠노라고 천연색 사진들이 나붙었을 때 의아스러웠고, 한편 퍽이나 근심도 생겼다.

생존을 위해 이민생활이라는게 항상 쫓기고, 또 공연을 위해선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어느 예술이나 사정이 다를바 없다.

더구나 연극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 연습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며, 또 출연자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과 장치에 투자하는 돈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 연극이 있게 마련이니 어떻든 징은 울리고, 막은 열티리라고 믿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영화화(「시집가는 날」) 되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7-8년전 극단 「가교」가 해외순회공연으로 이 작품을 선정했을 정도로 우리의 전통적인 연극요소가 넘쳐 흐르는 영원한 한국적-국제적인 작품으로 어쩌면 내용을 새삼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돈으로 사서 진사가 된 맹태량은 외동딸 갑분이를 세도가 김판서댁 자제와 혼사가 성취되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온 식구들과 동네사람들은 경사났다고 법썩이다.

갑분이의 삼촌 맹효원은 신랑의 선도 안보고 왔다고 꾸짖고, 맹진사댁 종 삼돌이는 역시 몸종 이쁜이에게 장가들게 되어 신바람이 났는데, 느닷없이 유생이 찾아와 신랑이 절뚝발이라고 일러준다.

가족회의에서 갑분이대신 몸종인 이쁜이를 대신 시집보내기로 작당하고, 갑분이를 멀리 친척집으로 보낸다.

이쁜이를 잃게 된 삼돌이의 주정에 맹진사도 갑분이를 준다고 약속한다. 잔칫날 신랑이 도착하고 보니 멀쩡한 다리를 가진 미남이었고, 피신시킨 갑분이를 다시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으나 노망한 갑분이할아버지의 재촉으로 이쁜이가 혼례를 올리고, 첫날밤 이쁜이는 모든 것을 신랑에게 고백한다. 그러나 권세와 미모보다 진정한 사랑을 중요시하는 신랑은 자기가 꾸민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대강의 내용이다.

맹진사가 신분도 돈으로 사고, 권세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딸의 혼인까지도 망치게 하는 신랄한 해학정신과 폭로와 유머가 깃든 현실비판과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으로 한인간(맹태량)의 감춰진 본성을 벗기는 폭로적 숫법으로 허위와 위선속에 숨어있는 실상을 관객앞에 내보이며 과거에 비친 교훈을 현재의 그것으로 받아들여 보다 나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한국인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실주의 연극이다.

손뼉치고, 동정하고, 배꼽쥐고 웃는 감동은 이질문화 속에서 소외와 고향상실에 빠져있는 관객을 완전히 마음의 고향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 무엇보다도 흥미를 끈 것은 객석을 꽉 메운 관객이었고, 또 희극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희극성도 무난히 발휘되었으며, 불타오르는 듯한 연기는 무대전체로 확산되어 연극이 가진 원래의 깊고 높은 예술정신으로 객석을 열기로 가득채웠다.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맹진사댁 경사」로 극단 "얼"창단공연에 도전하였다는 사실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해서 많은 관객을 끌 수 있었고, 연극이 민중의 예술이라는 것을 관객에 심어주어 창단공연으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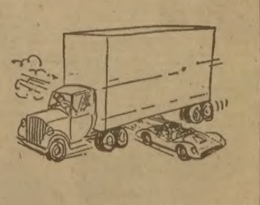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것을 보급해 보겠다는 의도이나 어쩌면 비교적 관대한 연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비평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점과, 특히 예술 연극은 그것이 관객의 호응이 없으면 자위행위에 그치고 만다는 두려움에서 안이한 작품선택인 것 같은 흔적도 보였다.

음악과 무용이 제거된 이야기 중심의 공연으로 관객의 취향을 좇는, 앞으로 우리 교포 연극이 다루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탐색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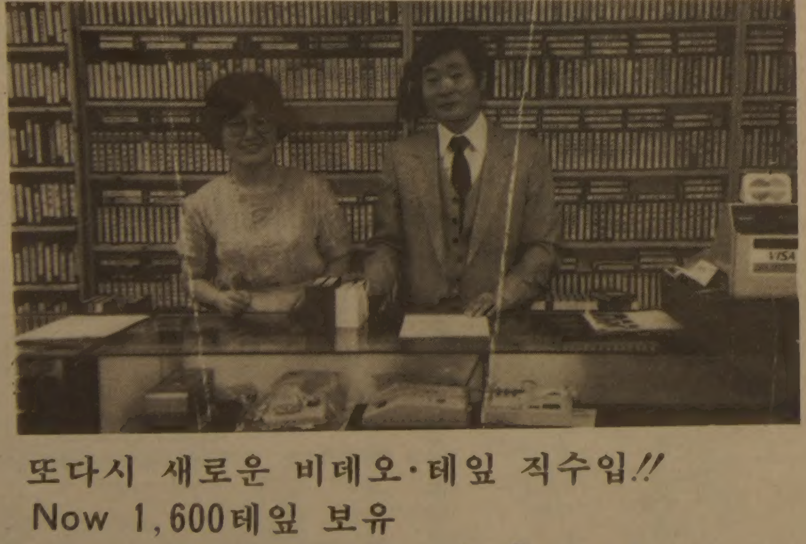
그러나 연극을 진지하게 대하고, 연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양식있는 교포 연극인들이 있음은 반가운 일이며, 매우 예리하고 진실하게 예술적 안목을 가지고 어떤 작품이나 소화하고 형사화 할 수 있는 극단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융통성있는 장치와 연출은 연극 전반에 걸친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극단 "얼"이 우리의 얼을 캐네디안 속으로 또 캐나다의 역사속으로 승화시켜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해외걸작만화



<무 제>



또다시 새로운 비데오·테잎 직수입!!
Now 1,600테잎 보유
외국테잎 다수 보유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확장이전개업〉
금번 저희 빅·세븐 선물센타는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오는 28일(월)부터 교민여러분을 모시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새로운 기분으로 성심성의껏 봉사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예전과 같이 계속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영 철 올림
새주소 : 660 BLOOR ST.W.
(내고향통닭집 옆)
PHONE: 533-7966
취급품목
◎LONDON FOG 바바리 ◎여자용 물세무 코트 ◎중국길림성 혈녹용, 야생녹용, 생녹용 ◎고려인삼제품(즉석에서 분말로 만들어 드립니다)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산삼 ◎사향 ◎경명무사 ◎우황 ◎나트륨유카
빅*세븐무역선물센타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실협 10돌맞이 잔치

3월26일 하오4시

2백여명의 외국인 업자들을 포함, 약 2천명이 참석하게 되는 창립 10주년 기념 「실협의 밤」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었다.

옥내의 디너파티로서는 캐나다 한인이민사상 최대 규모가 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협회 임원, 이사 일동은 2개월전부터 준비에 전력을 다해왔다.

하오4시부터 개막되는 30개 업체의 생산품 전시로 시작되어 칵테일, 만찬, 의식, 연예, 댄스, 그리고 경품추첨의 다채로운 프로로 진행되는 이날 저녁의 절정은 세계일주 비행기표(캐나다한국외환은행 제공)와 「포니」자동차(실협임원, 이사 일동 제공)의 행운을 추첨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다.

빅세일 하오4시부터

30개 업체가 참가하는 각종생산품 전시는 상품의 전시뿐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 Promotion을 통한 주문을 받게 되므로 비지니스상으로도 놓쳐서는 안되는 절호의 기회로서 전회원의 참가가 기대된다.

이 상품전시의 순서는 참가업자들이 각자의 생산품을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우리 실협회원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고, 따라서 우리 협회가 앞으로 일을 통하여 또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방대한 구매력을 실증하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매우 뜻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주최하는 실협간부들은 전회원의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단정한 복장을

근간 (토론토 스타)지등 매스컴을 통해 실협 1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소개가 널리 알려졌으므로 당일의 행사진행 상황이 많은 매스컴의 촛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의 행사는 10주년을 자축하는 즐거운 잔치인 동시에 이곳 캐나다 한인들의 수준이 평가되는 기회가 되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작업복으로 참가하는 분이 없도록, 남자는 타이를 착용하는 정장을 하고, 여자는 한복이나 드레스로 단장하여 우리 민족의 우아한 모습을 보여 주도록 각자가 배려해 주기 바란다.

2천명의 많은 사람들이 엄숙할 때는 엄숙하게, 즐거울 때는 마음껏 박수를 보내면서 질서정연한 잔치가 되고, 따라서 우리 한인들의 문화수준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

입장은 예매권에 한해

이번 「실협의 밤」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선풍적이어서 당일의 입장권은 지난 주말 현재로 이미 매진되었다.

토론토 시내에서는 가장 큰 장소인 하버·캐슬의 Grand Ballroom의 최대가능좌석을 마련하였으므로, 시중에 배포된 입장권에서 단1매도 더 여유를 가질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전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장소관계상 불가항력이므로 예매권 없이 현장에서 낯을 붉히는 사례가 없도록 일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복권은 좌석순회 판매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복권은 디너가 시작된 이후부터 수시로 협회이사 일동의 내외가 참석자들의 테이블을 순회하면서 판매하고, 디너 이전에는 판매하지 않는다.

복권의 추첨은 2차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참석자들의 즐기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할애하기 위해 추첨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당첨번호와 경품을 발표하되, 큰 경품 20여가지만 2회에 나누어 현장에서 수교하고, 나머지는 「실협뉴스」를 통해 당첨번호를 발표하고, 현품은 협회사무실에서 수교하기로 했다.

이는 방대한 홀에서 당첨자가 나와서 받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참석은 삼가도록

모처럼의 생일잔치에 온 가족 참석을 원하는 회원들도 있겠으나 너무 많은 인원의 참석으로 혼잡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소자의 참석은 삼가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혼잡의 방지뿐 아니라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이므로 회원제위의 양해를 바란다.

눈앞에 다가온 「실협의 밤」이 무사히 성과있게 막을 내리게 되기를 다 같이 바라면서, 회원여러분은 혹시 다소의 불편이나 못마땅한 점이 생기더라도 이날의 주빈은 실협회원 자신들이고, 일하는 임원과 이사들은 여러 회원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시기를 「실협의 밤」준비위원회 일동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수입 $16만 68% 달성

상반기 결산보고

협회의 83회계년도의 상반기(9/1-2/28)결산서가 집계되었다.

82년9월부터 83년2월까지 6개월간의 결산내역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37,400중 67.5%인 $160,400을 달성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는 34.8%인 $82,700을 집행하였다.

집행부는 3월26일 「실협의 밤」행사가 끝나는 즉시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중간감사를 받기로 했다.

상반기 수지 결산서

●수 입 (82.9.1~83.2.28)

장	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29,500.00	20,750.00
			공탁금	–	–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58,103.91	58,103.91
	특별수입	수입	빵	48,400.00	28,985.01
			아이스크림	34,000.00	13,525.74
			밀크	44,000.00	27,451.82
			잡지	8,000.00	6,017.82
		광고	광고수입	4,000.00	800.00
		기타	기타수입	7,400.00	2,068.42
		이자	이자수입	4,000.00	2,703.41
수입합계				237,403.91	160,406.13

●지 출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협회운영비	직원인건비	47,800.00	23,899.92
	상여금	6,000.00	2,632.30
	사무용품비	3,000.00	1,117.14
	사무잡비	3,000.00	1,764.27
	비품구입비	12,000.00	782.72
	회원친목비	8,000.00	1,142.61
	옥내행사비	3,000.00	–
	이사회비	8,000.00	2,356.75
	임원회비	3,000.00	1,132.20
	총회비	4,000.00	3,038.76
	포상비	1,000.00	604.55
	기념품비	1,000.00	–
	임대료	4,500.00	2,250.00
	전화료	4,000.00	1,194.50
	우표	6,000.00	3,147.16
	보험료	500.00	350.00
	어카운터	4,000.00	2,460.00
	전기료	1,000.00	299.44
활동비	협동조합추진비	40,703.91	
	협동조합연구비	5,000.00	582.15
	기부비	11,000.00	7,746.54
	경조비	4,400.00	2,521.89
	대외활동비	5,000.00	3,772.13
	출장여비	2,000.00	–
	상담실비	3,000.00	418.35
	기획조사비	3,000.00	96.10
	실협뉴스	25,500.00	12,150.00
	일반광고	4,000.00	2,000.00
	출판인쇄비	7,000.00	4,398.01
예비비	예비비	7,000.00	884.75
지출합계		237,403.91	82,742.24
잔액			$77,663.89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전자사진복사기

상점의 신종 이윤품목으로 등장!

전자사진 복사기가 코너스토어의 최대이윤메이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밀어닥치는 경제침체로 인하여 코너스토어 업주들은 종래 상점의 고유품목 이외의 품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많은 상점주들은 화초, Cut flower, dry nuts, Video game등으로 부수수입을 시도하였으나, 그중 가장 적은 투자로써 Video game과 더불어 전자사진복사기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교포업자인 스카이웨이상사의 김인환 사장에 의하면 현재 실협회원중 50명이상이 복사기를 리스(Lease)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스카이웨이사가 대여하는 기종은 일제 MITA-122로서 한달 대여료는 $116.50이며, 부수경비로 제반서비스및 고장수리를 포함, 한장당 0.2센트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김사장에 의하면 "올해들어 시도한 30여 K.B.A.회원들의 평균치를 보면 상점당 5천장을 복사하고 있는데, 5천장에 대해 상점주의 운영경비는 $100정도로서 월대여료를 제외하고도 $7백–$8백의 월수입금은 보장된다"고 한다.

한편 김사장은 이번 3월26일 「실협의 밤」 상품진열쇼에 참여하며, 회원여러분의 질의응답과 아울러 주문에 응할 것이며, 기계작동 방법에 대해서도 시위할 것이라 한다.

동사는 이미 「실협」회원들을 위한 복사기 대여계획안을 협회사무실에 제출하고 있다.

Discover the Missing Link.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대화개발주식회사
Daewha Developments Limited
General Contractor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3월26일
OPEN 4:00 PM
실협의 밤

상품진열쇼 및
당일 현장 빅세일

각종 상품의 진열과 함께 각 상사에서는 특별세일을 현장 부스에서 주문 접수하여(일부품목은 선착순) 다수의 회사들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경품과 더불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합니다. 금번 『실협의 밤』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한 각 상사의 상품진열쇼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상품쇼는 4시 정각에 오픈합니다.

ADAMS BRAND
CANADA DRY
COCA COLA
DEMPSTER'S BREAD
FRITO-LAY
GENERAL BAKERY
HALLMARK CARD
HOSTESS
HUMPTY DUMPTY
INTERCITY NEWS
KISCO PRODUCT
ROSEN DAIRY
SEALTEST MILK
SEVEN-UP
YORK ICE CREAM
NEILSON ICE CREAM
PANASONIC BATTERY
BENSON & HEDGES
S.B.S.CASH REGISTER
IRWIN SPECIALTY
RICHVALE COOLING & HEATING
SKYWAY BUSINESS MACHINES
LYNX GOLF
CLUB COFFEE
SEALTEST MILK
METRO NEWS

공 고

실협 창립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협회에서는 회장단과 이사장단 연석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감사표시와 공로표창을 하기로 결정하였기 알립니다.

— 아 래 —

공로패(창립위원) ········ 이재영 이홍준 최광준 전기석 이정용
기념패 ········ 김사만 협회등록 1번 박기복 협회등록 1,000번
감사패(이 사) ········ 김현모 김태진 장추국 곽정열 박찬도
이상봉 백경락 전윤식 구연원 서동준
감사패(단 체) ········ York Ice Cream, Intercity News Coca Cola, 카나다한국외환은행, 코리아타운번영회
표창장(모범회원) ········ 임연식 김신철 김석철
공로표창(사 무 원) ········ 서선미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카바레서「疑問의 毒殺」

종업원이 마시고 숨진후 毒든 유산균음료 또 발견

서울「江東」

警察、사건現場나타났던 40代여인 수배

화장실에있던 유산균음료를 무심코마신 종업원이 그자리에서 숨진사고가 발생했던 서울江東카바레(주인 金二龍·40·서울江東區千戶2洞425의5)에서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든 유산균음료가 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江東카바레에서는 지난17일 하오 10시50분께 웨이터보조원 申東燦씨(26·서울麻浦區 桃花洞 417의83)가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거울및 선반구석에있던 B사제품인 유산균 음료수1병(80㎖들이)을 발견, 이를 마시고 숨졌었다.

당시 申씨는 밤일을 끝내고 손님이 웨이터 또모씨(36·여)를 찾자 집에갈 채비를 하고있던 또씨를 찾아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이때 선반위에 놓인 은박지 뚜껑이 뜯겨지지않은 유산균 음료수병을 발견,『누가 나를위해 갖다 놓았구나』라고 농담을 하며 마신뒤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었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申씨가 먹다남은 유산균음료수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감정한 결과 19일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앞서 사건다음날인 18일하오8시20분께 같은 화장실에서 유산균음료수병이 또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웨이터 文모씨(32·여)에 의하면 18일하오 화장실에들어갔다가 전날 유산균병이있던 거울과는 다른 벽에 걸린 거울과 화장실벽틈에 반쯤 가려진채 놓여져있는병을 발견했는데 전날과는달리 H회사제품으로 가정용65㎖들이였다.

경찰은▲경쟁업자의 사주를받은 범행 ▲불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한 정신이상자의독살기도등의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 40대 여인을 용의자로 수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여인은 첫사건발생 2시간전쯤인 17일 하오 8시50분께 화장실옆에있는 옷보관소에 나타나 종업원 金모양(19)에게 옷을 맡기면서『유산균 음료수1병도 맡겨놓겠다』면서 처음 申씨가 마신 유산균음료수병과 비슷한 음료수병을 맡겼었다는것。

그런데 2시간후쯤 申씨가 숨졌다는 소식을들은 金양이 음료수병생각이 떠올라 찾아보니 여인이맡겼던 음료수병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여인이 옷보관소에 이를 맡겼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화장실로 옮겨놓은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두번째 발견된 유산균음료수병은 뚜껑을 뜯었다 다시 봉합한 흔적이 발견됐다.

飛鷹島앞바다 原木船침몰

기름흘러 養殖場오염우려

【群山】속보=전북沃溝郡米面飛鷹島앞 바다에서 18일 폭풍으로 침몰된 파나마 선적 원목선 자사호 (선장 유리시즈·퀸토·36)에서 벙커C유가 유출돼 고군산열도연안양식장의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있다.

19일 群山지구 해양경찰대에 따르면 자사호의 사고경위를 조사하던중 선박의 연료탱크에 1백50여톤 (7백여드럼)의 벙커C유가 적재돼있음을 확인, 항공기로 사고해역 오염여부를 관측한결과 이날낮12시현재 20여드럼의 벙커C유가 유출된것이 발견됐다는것。

벙커C유 유출로 오염이예상되고 있는 지역은 고군산열도를 비롯 飛鷹島·眞養島 하제항등이며 이일대에는 바지락 3백여ha、해태 1백58ha、해삼、전복、미역 5백ha등 양식장이 9백ha에 이르고있다.【群】

公園墓地 수사확대

分讓價인상등 公務員결탁 여부도

【水原】서울근교공원묘지의 탈세및 불법개간등을 일제수사중인 水原지검은 19일 2차로 경기龍仁郡二東面西里의 서울공원묘원(재단이사장 鄭東玉)과 始興郡秀岩面楊上里 안양공원묘원(이사장 양유선) 金浦郡金浦邑技井里 고려공원묘원(이사장 정운식)등 3개공원묘지도 탈세혐의가 있는것으로보고 관계장부를 압수, 이사장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또 京畿道가 지난해 2월 뚜렷한 인상요인이없는데도 공원묘지의 분양가를 20%, 관리비를 1백% 인상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공무원을 소환, 결탁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 공원묘지가 평당 몇백원밖에 안되는 야산을 3만~5만원씩에 분양,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평당분양가를 4만~6만원까지 1만원씩 올려줘 앞으로 분양할 1백여만평에대해 1백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해주었고 연간 관리비도 평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백%인상해준 배경을 중점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이들 공원묘지가종친회·군민회·교회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공원묘지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록돼있는데도 실제로는 허위약정서등을작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묘지분양자에게는 실평수보다 30~40%가 적은 면적을 분양하면서 좋은 묘자리를 준다고 웃돈까지 받아온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들은 허가받은 묘지면적을 모두 분양하고나면 묘지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묘지가 황폐화하고있어 이를제재할 제도적장치가 필요한것으로 밝혀졌는데 安養공원묘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허가면적 3만5천평을 모두분양한뒤 관리인 1명만 두고묘지관리를 제대로하지않아 많은묘가 훼손된채 방치되고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의공원묘지들이 세금관계장부를 없애버려 묘지를 분양받은사람들을불러 조사하는등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放送 英語듣기평가

中·高전학년에 확대

올해부터

문교부는 19일 올해부터 방송을 통한 영어듣기평가를 중·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확대실시하고 이를 성적에반영키로했다.

영어 듣기능력평가는 전국과지역별로 나눠 1·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를 전후해서 한학기동안 4차례실시하게 되는데 전국동시 평가는▲4월초에는 2학년 중·고생을 대상으로▲10월말 또는11월초에는 1학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2차례, 각시·도교위별 평가는▲7월초 3학년 중·고생▲12월중순2학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각각두차례 실시한다.

전국 동시평가에는 교육방송(FM)이, 시·도교위별은해당지역의 지방방송망이 활용된다.

평가내용은 해당학년별로 특정교과서에 치우치지 않고 충분히 공부했을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한다。

문교부는 방송듣기 평가가 학교사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도가 인정될경우 학교장의 재량에따라 영어과목 정규성적에 반영할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결과를 놓고 지역간 학교간 비교하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방송에의한 영어듣기 평가는 82년 전남도교위 관내에서 시험실시한후 지난해 11월에는 문교부가 전국의 2학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결과 영어의 학습지도와 평가방법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趙治勳 日本바둑 制覇하던날

한국의 名工은 名盤을 남겼다

趙棋聖부친 주문…며칠밤새워 完成

우리나라 제일의 바둑판 제조자 文麟桓씨

◇品質보증 自筆署名 「匠人의 소원은 名品을 내는데 있다」고 말하는 文麟桓씨는 자신의 제작품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써 名盤임을 보증한다고 밝힌다。

名人은 名局을 남기고, 名工은 名盤을 남긴다。趙治勳名人이 일본에서 후지사와·슈꼬 9단(藤澤秀行)과 일본바둑계 제일의 타이틀을 놓고 자웅을 겨루고있을때 「서울의 名工」은 마침내완성된 名盤을 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고있었다.

우리나라 제일의 바둑판 제작자 文麟桓씨(49·서울鐘路2가48의2)。그는지난17일 趙名人이 후지사와 9단을 물리치고 棋聖位마저 획득, 일본바둑계를 천하통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쳤다. 그 누군들 기쁘지 않으랴마는 名工의 감회는 한층 유난스러웠다.

지난11일 아침이었을까。趙名人의 부친 趙南鎬씨(64)가 文씨를 찾아왔다。趙씨는 文씨에게 특별한바둑판의 제작을 의뢰했다。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바둑판을 16일까지 만들어달라고。바둑판은 아무렇게나 만들려면 하루에도 간단히 만들수있지만 고급품을 만들려면 몇개월이 걸린다.

그는 趙씨의 주문을 받고 무척 당황했다。그러나 趙씨의 표정을 읽고 무엇인가 집히는데가 있었다。

趙씨는 아들이 후지사와 9단과 마지막 제7국을겨루는날 아들을위해 불공을 드리기로하고 그 供養으로 바둑판을 택한것인데 文씨는 오랜경험을 통해 趙씨의 마음을 읽어낸것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말들어오고있던 바둑판을 이기회에 완성, 趙名人의 승리를 축수하는 기념으로 삼고싶었다.

『명반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물론 재료도 좋아야겠지만 거기에는 匠人의 솜씨과 혼이 깃들여져야 하거든요』

그는 며칠밤을 꼬박새워가며 손질을 거듭, 16일 이를 완성했다。그가 만든 바둑판은 가장 좋은 재료로 치는 비자(榧子)나무로 사방 45㎝×42㎝, 높이 15㎝。

그는 약속시간을 어기지 않고 趙씨에게 바둑판을 넘겼다。手工費는 받지않고 재료대로 5만원만 받았을뿐이다。

바둑판은 그길로 서울貞陵자양사로 갔다。趙名人은 불굴의 투혼으로 大역전드라마를 펼쳐 마침내 일본바둑계를 통일 했지만 「바둑판 공방」의 울타리 없었던것도 아니터이다。

文씨는 지난 22년간 바둑판제작업에 종사하면서 헤아릴수도 없이 많은 바둑판을 만들어왔다。바둑판제조업자로서 유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갖고있는그는 그러나 마음에 맞는 바둑판은 손꼽힐정도라고 말한다。

아마추어4단 으로서 바둑을 좋아했던 그는 지난61년 공무원생활을 그만두고바둑판제작업에뛰어든이래 명반다운 명반을 만들려고 별러왔다。

스토리

快擧비는 供養으로 바쳐

22년외길…家業계승이 꿈

보통 바둑판은 기계적으로 만들지만 대국용은 품이 많이 든다。우선 비자나무를 절단후 자연 상태대로 2개월이상을 건조시킨뒤 기계대패로 반반하게 매지를 한다。그후 손대패로 흠을 골라 반반하게 한후 가볍게 밀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긋는 작업。대개 나무자로 대고 선을 긋지만 진짜는 나무솔자에 먹을 묻혀 튕긴다。

文씨가 이번에 만든 명반은 사실은 밑작업은 오래전에 끝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가 이번에야 끝을맺은것。

文씨는 趙名人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친교관계가 있었다。

지난77년11월 趙治勳名人이 王座타이틀을 획득하기 바로 몇시간전。그는 비자바둑판 1개를 등에메고 趙名人의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 恩平區葛峴洞으로 찾아갔었다。프로기사 몇사람과 소주잔으로 대작하던중 하오7시께 승전보가 날아왔다。비로소 文씨는 등에메고간 바둑판을 뒤집어 미리 써온 祝王座를 좌중에보여 즐거워했던 적이있다。

그리고 지난81년 1월1일에 그는 趙名人과 첫대면을 했다。名人位 획득후 한국에온 趙名人을 아버지 趙南鎬씨와 함께 만난것。그때 趙名人은 文씨에게 『한국의 바둑을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文씨에게 「名人」의 사인이든 도자기컵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이래 文씨는 趙名人에게 무엇인가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뜻도 함께이룬것이다。

「외길인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이른가 하고 사양하는 그는 4대째 장남에게 가업을 계승시키는 일본 天童지방의 한 바둑용구제작상처럼 1남4녀의 자녀들중 한명만에게라도 가업을 계승시키는게 꿈이라했다。【朴榮華기자】

月淑이의 勝利

밍크衣類수출로 훈장 李鍾範씨

비난불구 障碍者고용 生産性 높여

밍크코트는 뭐니뭐니해도 겨울옷의 여왕이다。어느나라 여자인가를 따질것도없이 일생에 한번쯤 걸쳐봤으면 하는 꿈의 의상。

불황속에서도 밍크의류를 가공수출,작년한해 6백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린 무명의 중소기업인 李鍾範씨(43·泰林모피대표·사진)가 상공인의날인 21일 국내굴지의 재벌들과 나란히 銅塔산업훈장을 받는다。

서울농대 수의과출신의 李씨가 모피가공의 길을 걸어왔음은 자연스러운일일지 모르지만 九老공단에 2개의 공장을 가진 사장으로 크기까지의 발자취는 남다른데가 있다。지난65년 李씨는 일본유학을 떠났다。북해도의 帶廣축산대학원야간부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며 낮에는 인근 밍크사육장에서 사육사노릇을 했다。

족제비과의 1년생 동물로 고래고기와 생선을주식으로하는 앙징스런 밍크를 키워보는 순간 그는「이생물이 나의운명을걸 대상이구나」고 직감했다고 술회한다。

이듬해 九龍浦에서 20마리의 종자밍크를 사육해본 李씨는 67년 다시渡日,동경의 다이요 밍크상사에 공원으로 취업, 유제(鞣製)가공과 염색기술까지 익혔다。

70년 혼자손으로 試製한 밍크숄이 일본의 수입선에서 호평을 받았고 74년 九老공단에 회사를 차렸을때는 이미 大洋 中村등 일본굴지의 밍크상사의 메인·바이어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생산직사원의 스카웃열풍이 불던 78, 79년 애써 가르쳐놓은 기능공이 자고나면 남의회사 사람이 되곤했다。

이때 그는 서울上道洞의 농아원에서 月淑이란 소녀를 데려왔다。

일제히 반대를 하던 생산직사원들은 정상인보다 집중력이 강한 月淑이의 바느질솜씨에 차츰 감탄하고「不遇」라는 공감대가 열리면서 급속히 친해졌다。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손익을 따지는 기업가입니다。이들의 고용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왔읍니다』

현재32명의 농아와 4명의 지체부자유사원을 채용하고있는 李씨는『올해에도 社內베스트5사원 가운데 3명이 농아였읍니다』며 싱그레웃었다。【申鉉鈺기자】

서울大生 6명 示威혐의 實刑

서울지법 南部지원은 19일 전서울大생 郭海坤(23·사회학과4년)、朱榮眞(23·무역학과4년)、洪承基군(23·사회복지학과3년)등 3명의 피고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金容民(23·무역학과4년)、金泰光(22·무역학과4년)、李星雨군(23·무역학과4년)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郭군등3명과 金容民군은 지난해11월3일 光化門과 鐘路국일관앞등지에서「국민에게 드리는글」이라는 반정부유인물 2천여장을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나머지 金군과 李군은 서울大축제기간이던 지난해10월27일 冠岳캠퍼스 학생회관앞에서 한일경협중지와 워커주한미국대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6백여장을뿌리며 교내시위를 주동한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었다。

馬山 龜岩洞주민에 괴질

20여명 高熱·설사

【馬山】경남 馬山市 龜岩洞23통과 인근지역주민 20여명이 설사와고열이나고 온몸이 쑤시는 증세로 치료를받고있다。

19일 이지역 주민들에따르면 지난달 23일께 이 증세가 처음나타나 현재까지 23명이 앓고 있다는것。

이병에 걸려있는 鄭신점씨(35·여)는『몸이 노곤해지면서 설사와 고열에 온몸이 쑤시는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고생하고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이 지역은 지난2월15일 행정구역 개편에따라 昌原市에서馬山市로 편입된곳으로 주민들은 昌原市召界洞에 있는 간이 상수도나 우물을 먹고있는 것이다。

船員 10명태운 漁船 1척실종

【光州】지난17일상오11시께 전남 新安郡荏子面비린도 북방 8.5마일에서 전남 靈光선적 제1백호호(29톤·선주 朴국현·40)가 선원 10명을 태운채 심한 풍랑으로 실종된 사실이 19일 선주 朴씨의 신고로 밝혀져 해경이 긴급수색작업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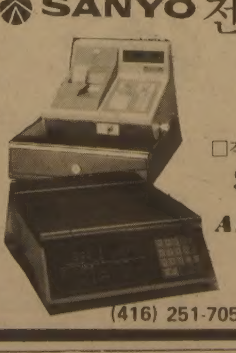
해경 木浦지구대에 따르면 유자망어선인 이배는 지난3일 靈光郡法聖面 法聖里항을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중 17일 폭풍주의보를 듣고 피항중 사고해상에서 실종됐다는 것이다。【光】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10 6개월 : $55 년 : $110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416) 251-7054 M8W 3T4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영복음모임
한국에서 6년동안 초종파 선교사로 봉사하신 D. OLSTAD 선교사께서 한인교포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복음모임을 인도하시게 되었사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보는 걷지 않습니다)
일시: 3월28일부터 4월25일까지
매 월요일 오후8시
장소: DAVID AND MARRY THOMSON
고등학교 Room 112
2740 LAWRENCE AVE. E.(MIDLAND & BRIMLEY RD.) SCARBORO.
연락처: 465－9758

몰매맞은「1億원의 팔」

프로야구 示範경기 三美 張明夫데뷔전서

4안타·3포볼5失點 6·7回

롯데, 三美에 逆轉勝 8—4

◇金宇烈 3점홈런 시범경기 OB—해태 대전 1회말 OB4번金宇烈이 3점홈런을 날리고 홈인하고 있다.【大田=[illegible]】

【釜山=方錦輸기자】프로야구가 새봄의 기지개를 폈다. 4개월간의 동면을 끝내고 프로야구 6개팀은 19일 새로 맞아들인 스타들을 선보이며 83년 정규시즌에 앞선 시범경기를 개시, 상호 전력탐색에 예리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겨우내 스타들의 플레이를 머리속으로 그리던 팬들은 釜山 大邱 大田등 3개 구장을 메웠다. 이날 釜山경기서 롯데는 三美에 8—4, 大田경기서 OB는 해태에 8—1로, MBC는 大邱서 三星을 3—0으로 눌렀다. 1億臺를 들여 보강된 三美 슈퍼스타즈의 마운드는 믿을만한 것인가.

최하위에서 상위 탈출을 노리고있는 三美의 에이스 張明夫는 釜山에서 처음 베일을 벗었다. 억대의 계약금으로 三美가 스카우트한 재일동포 투수 張明夫는 홈팀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 1차전 5회말 무사만루의 위기에서 선발 任昊均을 구원 등판, 첫고비를 1실점으로 선방했으나 6회말 롯데의 타자에게 집중 3안타 3四死球를 허용, 자책점 4점을 기록하고 물러났다. 간단한 워밍업을 끝내고 마운드에 오른 張은 자신이 맞은 롯데의 첫타자 2번 朴庸成에게 슈트로 위협구인 볼을던져「빈볼(위협구)」을 첫 던지는 살인투수」란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주었다. 張은 풀카운트의 씨름끝에 朴庸成에게 중전안타를 얻어맞아 1실점을 허락했으나 3번 金貞洙를 땅볼병살타로, 4번 金用熙를 우익수플라이로 잡아 큰불을 껐다.

6회 한이닝의 피칭은 張의 석가에 먹칠을했다. 5번 金容哲과 줄다리기끝에 포볼을허용, 주자를 내보낸 張은 1사후 7번 金成璟에게 좌전안타, 8번 韓문연에게 우전안타를맞아 1사만루의 위기를 자초. 준비가 부족한탓인지 張明夫는 성의없이 볼을 던지다 9번 權斗禕에게 화풀이하듯 데드볼을 던지고 말았다. 밀어내기로 1점을 허용한 張은 계속된 만루위기에서 3번 鄭學守에게 주자일소 3타점 우월2루타를 얻어맞았다. 2회동안의 張明夫의 투수기록은 11타자 8타수4안타 3死四球5실점 4자책점. 에이스 張明夫의 실투로 三美는 3—0으로 우세하던 게임을 4—8로 놓치고말았다.

◇19일전적

◆부산

삼미	300	001	00	—4
롯데	000	224	00×	—8

◆삼미투수=任昊均 張明夫(5회)甘四用(7회) 포수=金鎮雨 ◆롯데투수=金文熙 千昌浩(3회) 盧相守(6회) 포수=沈載元 韓문연(6회) ◆홈런=鄭光玉(1회·2점) 鄭求善(6회·이상三美)

李海昌 맹활약 MBC, 三星셧아웃

【大邱=千一平기자】MBC는 프로루키 李海昌을 입고 첫선을 보인 전국가대표 李海昌의 홈타와 빠른발이 돋보였다. 1번으로 등장한 李海昌은 MBC가 올린 3점중 혼자 2점을 따냈다. 1회말 프로첫타석에서 三星3루수의 에러로 출루, 행운을안은 李海昌은 3회말 진가를 보였다. 李는 1사후 깨끗한 좌전안타를 치고나가 2번 宋榮晨의 포볼로 2루까지 진루. 이어 3번 金在博의 유격수앞 땅볼을 잡은 三星유격수가 2루에던져 1루주자를 아웃시킨후 다시 1루에송구한것이 세이프된사이, 李海昌은 단숨에 빠른 발로 홈까지 뛰어들어 2번째 득점을올렸다. MBC는 그후 4번 柳承安의 우익수영을빠지는 2루타로 1루주자 金在博이 홈인, 3—0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대구

삼성	000	000	000	—0
MBC	102	000	00×	—3

金宇烈 드리런 OB, 해태大破

【大田】프로야구元年의 우승팀 OB베어스는 大田경기서 1회초 金宇烈의 장쾌한 3점홈런으로 기선을 잡고 해태를 8—1로 대파했다.

◆대전

해태	000	001	000	—1
OB	610	000	10×	—8

◆홈런=金宇烈(3점·1회·OB)

땅끝에서 오다 <12>

金成一 作 宋龍 畵

한권의 책 ③

웨이트레스가 주스와 우유와 맥주를 한꺼번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손님의 괴상한 주문에 대하여 장난스런 마음으로 나타내는 무언의 표정이었다. 준호가 그녀에게 싱긋 웃음을 건네주자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계산서를 놓고는 달아나버리는 것이었다. 주스와 우유를 단숨에 마셔버리고난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글라스에 맥주를 부어놓았다. (……아아, 인생은 술취함과 술깨는 것의 덧없는 반복이로구나)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그 문장이 어쩌면 하나의 절실한 시구(詩句)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는 스스로 감격하고 있었다. 맥주를 두 잔째 들이켰을 때 비로소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트림이 올라왔다. 뱃속에 가라앉은 온갖 더러운 울화통이 한꺼번에 솟아져나온듯 시원했다. 문명실을 생각하니 또 스미에의 살냄새가 거기에 겹쳐지고 있었다.

『천하여자』 그가 늘 스미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은 그녀가 너무 쉽게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였으며, 너무 지나치게 고분고분하다는것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준호의 말에 무조건 복종이었다. 몇번이고 낙태를 하라면 순순히 그렇게했고, 만나기 싫다면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이야기가 귀찮다고하면 하루종일이라도 침묵하였다. 준호는 바로 그복종이 두렵고 지겨웠던 것이다. 스미에는 동경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우에다·구미꼬(上田久美子)의 친구였다. 그러나 준호가 그녀를 처음 만난것은 구미꼬의 소개로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고쿠데쓰의 하마마쓰쬬(濱松町)역이나 신바시(新橋)역에서, 또는 도에이(都營)선의 오나리몽(御成門)역에서 만날수 있었던것은 그녀의 유난히 흰피부와 머리꼭대기에서부터 묶어서 늘린 말꼬랑지형의 긴머리때문이었다.

스미에의 긴 말꼬랑지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어서 그녀가 세군데의 역에 나타날 때마다 멀리서도 그녀를 알아볼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준호 자신은 별로 특징이 없었는지 스미에는 한번도 그를보고 알은 체를 하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그녀가 준호의 사무실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친구 구미꼬를 찾아왔었고,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대뜸 그녀를 알아볼수 있었다. 그들은 뭔가 한참을 웃으며 소곤거리더니 구미꼬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하야시(林) 상』

임준호의 성이 일본식 훈독으로는 하야시이기 때문에 사무실의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네, 우에다상』

『하야시상, 오늘 한턱 내셔야겠어요. 내 친구 야마우찌·스미에에요』

스미에의 하얀 얼굴은 금방 귀밑까지 빨개지고 있었다. 준호는 뭣모르고 반가와서 당장 그녀들 점심을 비싼 것으로 한턱 냈지만, 확실히 먼저 알은체를 한 것은 스미에의 실수였다. 그것은 내내 그녀가 한국여자가 아닌 원인이 되어왔던 것이다.

張吉山 <1695>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55)

정원태 김시동 천성달은 조정에 대한 생각이나 백성의 그것이어서 갓쓰고 도포 입은 양반만 보아도 몇배께 하게 아는 편이었고, 그들이 이 무엇이란 정점은 또렷이 젊은 세월 또한 바람과 구름 가 울적한 판이었다. 그러나 이시흥과 그의 동행들은 워낙 삼만으로 체념하여 살아온지가 오랜 세월이라 막바로 얘기의 중핵으로 접어 들어갈 수는 없었다. 시동이가 대강 행상이나 저자의 객점 주나 공청이를 간에 상조의 뜻으로 계가 짜여졌음을 설명하였고, 생업에도 많은 보탬이 될것이라고만 던져 두었는데 이시흥과 그의 동행들은 서로 계원이 되려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계가 있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염장에 가도 염간들의 행패가 자심하여 패거리 없는 연고없는 소매상들은 소금 한 섬에도 선계의 천도를 구할판인지라 노상 어물을 구할 작당이 되어 어물을 구입하면 선주와 유리한 흥정을 할 수가 있건만 저쪽에서 넘기려는 가격에 매이고야 맙니다』

『그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요. 송상이란 게 뭐별 재주가 있어서 송상인가요? 짜임새가 있고 합심 협력이 되니까 팔도의 향시를 틀어쥔 것이지요. 우리 기순 일대의 난전과 소매상들이 계를 이루어 작대가 되면 서강이나 마포·동막·용산 삼개의 경강 아치들도 후릴 수가 있음

미두완이는 행상이 아니었으나 그에게도 좋은 생각이 있었다.

『우리네는 삼림 가용을위하여 빨래꽃지도만들고 싸리비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심파강(瀋波江)에서 나오는 완골 갈대로 짠 자리가 잘 알려진 명품이지요. 대부분 공비하거나 시전에먹이니 제 값을 받나요. 땅부쳐먹기야 관례가 정해져있으니 반타작이라지만, 우리도 계가 짜여지면 훨씬 이득이 있을겁니다』

어쨌든 이해실리가 백성의 마음을 보는 급소라던 정원태의 말은 일단 맞는 얘기가 되었다.

『계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살자는 얘기요』

하고나서 정원태는 입을 떼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유만 좇아 움직이는 것 또한 진심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우리 계는 교를 믿어 마음을 바르게 해나갈 규칙을 세웠지요』

조무인이 어리둥절하며 되물었다.

『교라니요, 절 말씀인가요?』

『절은 절입니다만…』

전성달이 흥선산 장군사에 기댄 정원태라 스스로 나섰다.

『부산흙께 공양미 시주한 아 처먹고 그들만 위하여 목탁 때려 기원하고, 돈이나 양곡 한줌 바칠길 없는 우리네 상것들에게는 눈이나 흘겨대는 그런 절이 아니지요』

이두완이 말하였다.

『그런 절이 있다면야 부처님의 본 마음이 기신데 왜 저희가 마다합니까. 우리네야 믿을데가 없으니, 절에는 생각도 못하고 기껏 서낭당에 축수나올리고 무꾸리도 하고, 노인네들은 뒤란에 정화수 떠놓고 미륵님께 빌지요』

『바로 그…우리 계가 마음을 지켜나가기로 정한분이 미륵님이 옳시다』

정원태가 말해주니 조무인은 그제사 마음이 놓이고 미륵님 쯤이야 우리도 벌써…

스핑크스 判定勝 라이트 헤비級

【아틀랜틱시티(뉴저지州)=外電綜合】프로복싱 WBA라이트헤비급챔피언 마이클·스핑크스(26)가 통합 WBC챔피언 드와이트·브랙스턴(30)에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 거두고 세계라이트헤비급 통합챔피언에 올랐다. 19일(한국시간) 이곳 컨벤션홀에서 벌어진 통합타이틀전에서 스핑크스는 8라운드에 녹·다운 됐으나 브랙스턴보다 21㎝가 큰키(188㎝)를 살려 레프트잽으로 점수를쌓아 무난히 승리했다. 토니·카스텔라노 주심은 144—140, 프랭크·카푸치네, 토니·페레즈부심은 각각 144—141로 스핑크스 우세를 판정했다. 이로써 스핑크스는 지난 74년 봅·포스터가 현역에서 은퇴한이래 첫 라이트헤비급통합챔피언이 됐으며 미들급의마빈·해글러와 함께현역선수로는두번째통합챔피언이 됐다. 스핑크스는 이날 승리로23연승(16KO)을 기록했다. 그러나 스핑크스는 기민한 몸놀림으로 상대의펀치를 약화시켰으며 예리한잽을 브랙스턴의 머리에 퍼부었다.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 現場 ⑳

題字 原谷 金基昇

中國대륙 流浪…重慶까지

臨時정부 <下>

光復軍 결성 戰時體制 갖춰

1926년12월14일 金九가 臨政의 國務領으로 취임했다. 臨政국무위원중 유일한 생존자인 趙擎韓옹(84·서울城東구中谷동243의8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臨政안에서도 白凡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 그들은 白凡이 무식하다고 트집을 잡았지. 臨政초기부터 경무국장으로 발탁된 白凡이 요직을 거쳐 臨政의 우두머리격인 國務領에까지 올랐으니 시기도할만했지. 그러나 과거 新民會때부터 白凡을 굳게 신임해온 李東寧선생(臨政초대내무총장)이 白凡의 國務領 추대에 특히 적극적이었어』

이같은 臨政내에서 자신에 대한 반대여론이 남아있는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것으로 판단한 金九는 지도체제를 바꾸기위한 개헌에 착수했다. 이개헌안은 나라일에대한 책임을 한사람에게 지우는 國務領制를 폐지하고 완전한 會議體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이 개헌안은 이듬해 3월 議政院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것이 3차개헌이었다.

『모든 국무위원은 권리나 책임이 동등하다.…총리의모든 문제를 극복할수있었다』는 金九의 말처럼 보다 민주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하며 臨政내의 지도력결핍을 말해주는것이기도하다.

이 개헌의 다른하나의 특징은 초정부적인 단일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는점이었다. 「잠차 독립운동자들의 대동단결체인 黨이 완성될때 국가의 최고권력은 黨에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같은 의지는 1930년 臨政의 여당격인 韓國獨立黨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1931년 일본이 滿洲사변을 도발하자 臨政은 金九에게 對日특수공작임무를 맡겼다. 金九는 암살과 파괴를 목표로하는 韓人愛國團을 조직, 對日 항전에 나섰다. 그 첫번째 공작이 1932년1월28일의 李奉昌의사의거였다.

당시 上海에 살면서 金九를 도왔던 韓道源씨(78·서울東大門구 長安동 長安아파트62동502호)는 李奉昌의사가 일본천황을 암살할목적으로 上海를 떠나던 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白凡선생께선 폭탄이나 루키, 예금통장등의 일부를 저에게 맡겨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1931년 12월 말께 그러더이오셔서 폭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맡긴돈 5백원도 찾아오라더군요. 저는 폭약을 채소바구니에 넣어 인력거로 上海부두까지 실어날랐지요. 그후 白凡선생께서 자네소로 東京에서 전보가 올테니까 아무한테도 보이지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32년1월초순께로 기억되는데 「양복시세가 좋아 1월28일 홍콩판다」는 전보가 東京에서 왔지요. 李奉昌의사가 일본천황에게 폭탄을 던진날이 1월28일이었죠. 나는 그때야 비로소 上海부두에서 봤던 청년이 李의사였고 내가 보관했던 폭탄이 천황에게 던져졌다는것을 알았지요』

李奉昌의사는 그가 목적했던 천황암살에는 실패했으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모든 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특히 國民黨기관지 國民日報는 『한국인 李奉昌이 日皇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중하지않았다(韓人 李奉昌 狙擊不幸不中)』고 보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같은 보도에 격분한 나머지 上海事變을 일으켰으며, 上海의 일본군이 중국군의 저항으로 예상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자 시라까와(白川義則)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증원부대를 파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라까와는 1932년4월29일 上海 虹口公園에서 열린 일본천황 생일기념식장에서 애국단원 尹奉吉의사가던진 수류탄에맞아 폭사했다.

李奉昌의사의 의거에 이은 尹의사의 의거는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萬寶山사건으로 나빠졌던 한국인에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말끔히 씻어졌다. 蔣介石의 국민당정부가 臨政에대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개시했으며 洛陽군관학교에 韓人훈련반을 설치,군사인재를 양성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같은 중국인의 한국인관은 그무렵 蔣介石이 中央軍官학교 3천생도들에게『여러분 모두가 尹奉吉의사와같이 된다면 중국은 결코 침공받지 않을것이다』고한 연설에서한마디로요약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두의거가 국내외에서 항일투쟁의 불꽃을 다시 달아오르게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로인해 임시정부의 타격도적지않아, 일본의 탄압으로 프랑스조계의 上海를 떠나 嘉興 鎭江 長沙 廣東 柳州등으로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다.

1937년 中日전쟁이 일어나자 臨政은 독립전쟁을치를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그 산하에 韓國光復陣線을 결성함으로써 戰時체제로 돌입했다.

◇臨政국무위원중 유일한 생존자인 趙擎韓옹. 고령에도 작을 신경통이 겹쳐 자신의 회고록편을 못쓰고 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하고 게으름을피다 이렇게됐다』고 겸연쩍었다.

이 光復陣線에 소속된 단체는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한국혁명당 및 미주 하와이등지의 5개애국단체가 망라된 연합체로서 비록 공산계열은 제외되었지만 민족진영으로서는 최대의 조직체였다.

이무렵 金元鳳의 朝鮮革命黨이 먼저 朝鮮義勇隊를 조직,군사행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이 군대는 1938년 10월 중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발족했기 때문에 臨政에서도 독자적인 군사행동을전개하기위해 光復軍의 창군을 서둘렀다.

1939년9월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듬해 9월 李靑天을 사령관으로 한 光復軍이 창군되었다.

이와함께 臨政은 1938년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西安에 군사특파단을파견하여 군인을 모집하고, 선전위원회를 두어 외교활동도 강화했다.

한편 독립체의 대동단결을 위해 蔣介石의 주선으로 金元鳳과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했다. 두사람의 선언은 곧 실현되지 않았으나 뒷날 金元鳳이 臨政에 참여 군무부장 또는 光復軍의 제1지대장이 되는 길을 터놓았다.

1940년5월 金九는 민족진영의 세력강화를 위해 光復陣線의 해체와 3당을 국민당 독립당 혁명당을 해체시키고 唯一黨으로 韓國獨立黨을 창설했다.

이같이 과도기를 통해 金九의 지도력이 강화되어 발휘됨으로써 臨政내에서도 집단지도체제에서 주석지도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 무르익었다.

그리하여 1940년10월8일 議政院을 통과,이해 공포된 4차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개헌으로 主席의 위치는 국가원수로서 국군을 통수하며 정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통치권자로 강화됐고 金九가 그자리에 앉았다.

1937년의 中日전쟁에이어 1941년12월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2차세계대전은 막바지로 치닫았다. 光復軍의 활약이 있어야할 시점이었으나 兵員이 여의치 않았고 3백명정도의 군대를 유지할수 없을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태였다.

◇45년10월 臨政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重慶에서 귀국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은 臨政각료및 가족들. 앞줄 왼쪽부터 다섯째가 金九, 여섯째가 李始榮.

이를 타개하기위해서는 원조를 다변화하는 도리밖에 없었으며 그 첫 대상국이 미국이었다. 金九는 李承晩을통해 미국정부와의 원조교섭을 시도했으나 미국은 光復軍이 중국에 예속되어있기 때문에 원조할수없다고 거절했다.

李承晩은 이즈음 金九에게 보낸 서신에서『과거10년간 한국인이 제공한 정보는 정치적인것 뿐이지만 군사관계는 전혀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기밀을 탐지해내면 재정상의 비용도 얻을것입니다』라고쓰고있다.

光復軍이 중국군에게 예속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金九주석 "本國진격前에 日 敗亡해 失望"

9개항준칙이 폐기된것은 1944년8월의 일이었다. 이후 臨政과 중국정부사이에 새로운 군사협약이 체결돼 軍事주권이 臨政으로 이관됐으나 그것은 민족의 광복을 불과 4개월 앞둔때였다.

金元鳳의 좌익계열까지 임시정부의 기치아래 모여 민족의【대동단결을 과시했던 臨政은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對日宣戰포고와 함께 독자적인 본국수복을 위한 군사작전을 펴려던 계획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대외적인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일본의 패망소식에 金九는 『내게 기쁜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써 참전준비를 한것도 허사다. 본국진격계획도 미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해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진실로 前功이 可惜하고 그보다 걱정되는것은 우리가 이번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때문에 장래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약하리라는것이다』고 탄식했다. 그것은 바로 적중됐다.

金九주석등 임시정부인들은 해방이 석달이 지난 1945년11월23일 개인자격으로 귀국했고 그후 自由黨치하를 거치면서 사실상 소멸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臨政초기 대통령을 역임한 朴殷植, 臨政초대 법무총장 申圭植, 군무총장 盧伯麟등을 비롯 조국해방을 못보고 중국땅에서 작고한 수많은 순국열사들의 주검이 묻힌곳은 어떻게 되었는지.

趙擎韓옹은 『원래 외국인 묘지에 묻혔는데 흔적도없이 밀어버렸다더라』고 했으며 臨政국무위원 故閔弼鎬의 아들인 前駐泰공사 閔泳秀씨(63·申圭植의 외손자)는 『중공당국에서 밀어버리진에 유해를 수습, 공원묘지에 모셔놨더라』고 했다.

【林鍾乾기자】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500 $12,000 $14,000(황용현)
Discount스토아(주6일) $7,000(임윤식)
Tuck Shop 주매상 $3,000 $5,000(임윤식)
Nut Shop 시간짧고 바쁜 쇼핑센타내 아스킹 $30,000(황용현)
●과일가게 년매상 $500,000이상, 프라쟈내(임윤식)
●Fish & Chip 주매상 $8,000 쇼핑센타내 아스킹 $279,000(황용현)
●건물달린 가게
1)3 Bedroom 코너집, 빈가게자리, 가게꾸밀 분에 적합, $25,000 다운페이 가격 $165,000(황용현)
2)주매상 $7,000 2—Bedroom아파트, 80,000다운페이 합계(가게+건물) $25 0,000(유웅복)
3)주매상 $7,000 코너건물(서쪽지역) 가게와 건물 $330,000(황용현)
●꽃집: 다운타운 TTC주차장옆 27년된 꽃집, 짧은 시간(일요일 닫음) 아스킹 $45,000(황용현)
●투자용건물 1)한인상가에 있는 상용건물 $50,000 다운페이 $159,000 용현)
2)영 Street선상 투자용건물, 건물 3동 ($200,000다운) 아스킹 1백만불 (황용현)
3)버라이어티 건물달린 아파트, 다운페이 $30,000 아스킹 $95,000(유웅복)

●플라쟈 1)32 Unit apt, 11% 모게지 가격 $690,000(이헌영)
2)4개의 Store $120,000(12% 모게지) 가격 $525,000(이헌영)
3)16개 가게 년수입 $240,000 다운페이 $750,000 12% 모게지 $2,350,000(황용현)
4)15개 가게 년수입 $120,000(11¼% 모게지) 가격 $1,350,000(유웅복)
●주택 1)돈밀×로렌스, 방갈로 3베드룸, 쇼핑센타근처, TTC 10¾% $129,000(유웅복)
2)다운타운 타운하우스 3베드룸 13% interest 가격 $75,900(유웅복)
3)윌슨×쉐파드, Split House 3베드룸 지하실 잘 꾸며진 교통편리 $145,000(임윤식)
※이외에도 주택을 사실분이나 파실분은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 7—9395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문의 533-2361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팀 쉴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캐나다 수입업자가 한국측 합작선을 찾읍니다. 단체나 개인, 전문적인 회사면 더욱 바람직함.Jorcorp Inc.
5030 Maingate Dr. Miss. Ont. L4W 1N5. 전화 : 273-9484(George)

5학년 남자어린이 영어지도 해 주실분(고등및 대학생) 구함. Eglinton & Weston Rd. 지역
전화 : 767-5960, 763-4296

가게 헬퍼구함
2887 Dundas St. W.(keele St. 에서 한블록 서쪽) 내방원함.

경험 있는 여자 풀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925-0339

Oakville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실 웨이트레스 약간명 구함. 582 kerr St.
전화 : 842-0647 Mr. 김(오후3시 이후)

Sudbury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83-3391 Mr. 김

입주하셔서 가사와 아기 돌볼 가정부 구함.
457-9570

◉경험있는 45세 미만의 여자분으로서 한식요리및 일식요리사 구함.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7-0432
주소 : 658½ Bloor St. W. Tor.

Store helper full-time(입주)과, part-time 독신남자.
살림돌보며 가게일 봐주실 50대(입주) 아주머니 연락주세 요.
가게 전화 : 690-6572
주소 : 2038 Queen St. E. Toronto, M4L 1J4

웨이트레스 1명구함.
전화 : 532-2727

그래픽코스를 수료했거나, 소질있으신 분 구함.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전화 : 251-9587 크로바프린팅

입주하셔서 두아이(5살·7살) 돌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실 할머니 구합니다.
전화 : 487-8665(오후 5시이후 전화요망)

도넛츠 가게 일하실분 구함. Midnight 풀타임 또는 주말 파트타임. 다운타운 또는 West 지역
전화 : 222-3877

입주하셔서 가사와 애기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266-6355

베커스토아 헬퍼구함. 밤11시~아침7시. 경험있고 영어좀 할 수 있는 분. 261 College St. Tor.
전화 : 979-2545(B). Mr. Gus Doudoumis

당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경험있는 Tire Salesman과 비서를 구하고 있음.
단, Canadian Citizenship 소유자라야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Kum Ho Canada Inc.
전화 : 224-2491 (Mr. 박)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구함.
전화 : (R)282-6223
(B)839-8438

경험있는 풀타임 큰 Presser 기술자(남자) 및 재봉사 급구.
전화 : 766-3122 Mr. 리
(오후1시이후 부터 오후7시 연락)

사람찾음

충남예산군 신양중학교 11회 동창 예고졸업한 양경숙씨 찾음. 결혼후 이경숙. 76년도에 엄마, 동생 경순과 함께 캐나다 이민왔고 78년도 Weston Rd.에 살았었음. 뉴욕서 친구 손임순이 찾음.
전화 : (212)278-6393.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개인지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매 매

한사람이 할수 있는 위치 좋은 아이스크림 도넛숍 팝니다.
전화 : 466-3995 (오후 2시전 전화요)

가정사정상 그로서리 가게를 팔고자함
주매상 $4,000 956 Brimorton Dr. Scarboro.

버라이어티, 기프트스토아 매매
주매상 $7,000. 아스킹 $10만5천(짧은 시간)
(로타리오 머신의 수입) 전화 : 223-8805 Mr.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침 9시-밤 10시.
전화 : 222-3109

버라이어티 가게 달린 2층건물 매매
직접 내방 바랍니다.
774 St.Clair Ave. W.

2개 프렌차이스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낮음. ◉주매상: $6,000
전화 : 299-4091 (오후 4시~10시)

Baskin Robbins Ice Cream 급매
Oakville에 있는 간편하고 안정된 비지네스.
주위환경이 좋은 큰 쇼핑 Mall에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문닫음. 한주인이 6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 10년,
권리금: $35,000+Equipment(6만불) (조정가능함)
전화 : 월-금 827-0995(11AM~5PM) 토·일 827-7057 Mr. 최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좋은 투자의 기회! 13개 배출러. 리노베이트된 벽돌건물 Semi. 다운타운 U of T. 아파트 있는 빌딩. 가구있게 지어졌음 파킹 2개씩 있음. W. H. Bosley Co. -Percy 전화: 486-5777

캠핑 트레일러 팝니다. 6인용 WT.: 460Kg.
2 Gas burner stove. 씽크 달려있고 냉장고(프리저 포함).
전화 : 283-1733

2층 빌딩과 가게 매매
1층은 그로서리 스토아. 1,200 sq.ft.
2층은 2개 아파트먼트 있음.
19년된 깨끗한 건물
주매상: $5,000. 개인매매
전화 : (514) 671-1941 몬트리얼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691-8337 Mr. Lee

Gift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짧은 시간(9AM~9PM). 주6일. 좋은 이윤.
로타리오+티켓(월수입 $1,000 이상.). 년매상 14만불.
렌트 $700. 아스킹 $59,000(스타포함)
전액 Cash 원함.
2438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949

성공한 버라이어티나 Gift 스토아 원합니다. 트라픽이 많은 Mall안에 있고 동쪽끝 원함.
전화 : 496-1592 Mr. Lalani

비데오 & Pinba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수입. 짧은 시간.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842-6195. 359 Kerr St. Oakville.

79년 밤색 VOLVO 스테이션·웨곤 245DL.
AM·FM 카세트. 컨디션 좋음. 가격: $4,900
전화 : 767-5080 Mr. 리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 세놓읍니다.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2베드룸과 1베드룸.
전화 : 365-1489(낮) 493-9599(저녁5시 이후)

---

1 Bed Room 아파트 써브렛
월 $330. 105 West Lodge(랜스다운×퀸)
전화 : 531-5828 Mr. 김

Flat 아파트 2층(1 Couple 또는 개인2명)
방2개, 부엌, 목욕탕. (레이크셔×키플링)
(오후6시 이후 전화요망) 전화 : 251-6103 Mr. 오루사

전세(Semi-Det. $650)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
전화 : 282-0236, 461-2771, 968-6284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 (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가 : 463-9071 Mrs. 리
812 Queen St. E.(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이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